

가이바라 에키켄 사상과 관련한 환경 윤리학적 고찰

WEI FENGLIN (광둥외어외무대학)

1. 서론

가이바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4)은 에도 시대 전기 후쿠오카번에서 태어나 후쿠오카번을 섬기면서 산 저명한 유학자이다. 그는 유학을 중심으로 하여 학문적 관심을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많은 교훈적 저서를 남기며 사회 계몽적인 학문을 전파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양생훈(養生訓)》, 《화속동자훈(和俗童子訓)》, 《대화속훈(大和俗訓)》, 《대의록(大疑錄)》, 《신사록(愼思錄)》 등이 있다. 과거 연구는 에키켄의 도덕교육론, 주자학(朱子學) 비판, 양생 사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의 논설을 환경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아직 적다.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가 복잡,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 선인의 환경 사상을 다시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에키켄의 환경 사상의 특성을 그의 저서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현대 환경 윤리학과 공통점을 논하고자 한다.

2. 환경 윤리학으로 본 가이바라 에키켄의 사상

2.1 에키켄의 근본 사상—‘이기일물(理氣一物)’

주자는 “천지 사이에는 이치(理)와 기(氣)가 있다. 이치는 형이상적 길이며, 생물의 근본이다. 기는 형이하적 그릇이며, 생물의 도구다.”¹⁾라고 논하며 이기이원(理氣二元)을 통해 만상의 근원을 설명하지만, 에키켄은 이기이원에 의문을 품었다. 《신사록》에서는 “그릇이 없다면 길도 보이지 않는다. 길이 없으면 그릇이 그 근본을 잃는다. 길과 그릇은 떨어질 수 없다. 기 없는 이치는 없으며, 또한 이치 없는 기도 없다. 전후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치와 기는 두 개가 아니므로 이합을 논해서는 아니 된다.”²⁾라며 이기일체를 역설하고 있다. 《대의록》에서는 “이치는 기의 이치다. 연중, 기의 운동 변화에는 조리(條理)가 있으며, 문란하지 않다. 게다가 이치는 반드시 기로 인식되어야 한다.”³⁾며 이치를 기의 속성으로 보았다.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이다. 따라서 기 사상의 근저에는 만물의 근원이 같으며, ‘만물일체’라는 전제가 따른다. ‘만물일체’의 시점에서 보면 천지자연은 인간의 규범으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질서에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본분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물일체관은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사상에서의 자기 인식 특성은 어떻게 한 개인이 스스로의 의식에서 떨어져 자신을 천지와 합치시키고 일체화 시키는가 하는 점에 있다.⁴⁾ 그것은 환경 물리학의 시점으로 다시 보면 자연 속 인간의 존재 방식, 또는 인간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 환경에 대한 존재 방식을 묻는 문제다.

1) 주자는 중국 북송의 유학자로 이기이원설을 주장했다.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天地之間有理有氣。理也者形而上之道也、生物之本也、氣也者、形而下之器也、生物之具也”

2) 참고 문헌

3) 참고 문헌

4) 참고 문헌

2.2 비인간 중심주의—‘천지는 만물의 부모’

환경 윤리학은 자연 환경 파괴 문제를 단순 기술적 문제로 삼지 않고, 윤리 문제로 다루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고찰하는 학문이다. 환경 윤리학이 주장하는 핵심은 지금까지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을 둘러싼 지구 생태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으로의 이행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생태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연과 여러 생물을 인간 지배 아래에 두어도 된다는 의미의 ‘인간 중심주의’를 버리고 인간도 여러 생물과 함께 ‘우주선 지구호’에 탑승한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우주선 지구호’의 탑승원인 모든 생물을 침몰시키는 자연 생태계 파괴를 멈추거나, 최소한으로 억제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비인간 중심주의’ 또는 ‘자연 생태계 중심주의’라고 부른다. 가이바라 에키켄은 천지와 인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천지는 만물의 부모이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상서》에 서술되어 있다.

……천지는 만물을 낳아 기른다. 금수초목과 달리 만물 중에서 천지는 특히 인간을 총애했으며, 인간을 천지의 자식으로 삼았다. 또한 인간은 천을 부친으로, 지를 모친으로 삼아 천지의 끝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

에키켄은 “천지는 만물을 낳아 기르며 금수초목과 달리 만물 중에서 특히 인간을 총애했다.”라고 말한다. 즉, 인간은 천지에게 가장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천지(현대어로 풀이하면 자연)는 ‘만물의 부모’이며 만물의 절대적 근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지 중심 지위를 바꿔놓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 윤리학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자연의 중심 지위를 존중하며 인간이 최고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2.3 생명 존중 주의—‘금수충어초목(禽獸虫魚草木)을 가없이 여기다’

환경 윤리학은 인간이 여러 생명 중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자연 생태계 안에서 자란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연과 생명의 공생,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과 가능한 공생하고자 한다. 에키켄 또한 ‘금수충어초목’, 즉 생물 보전에 대해 논하였다. 《대화속훈》 3권 1절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만물은 모두 천지가 낳은 것이다. 그중 인간은 특히 천지의 은혜를 받고 있다.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천지의 자식이다. 그렇기에 천지의 뜻에 따라 어진 마음으로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만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륜을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 금수충어를 사랑하고 함부로 살상해서는 아니 된다. 또 초목을 사랑하고 함부로 베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인간을 가없이 여기고 만물을 사랑하는 순서다. ……금수도 초목도 모두 천지에서 자라나므로 함부로 이들을 훼손하는 일은 천지를 향한 불효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금수충어를 사랑하고 함부로 살상해서는 아니 된다.”, “초목을 사랑하고 함부로 베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은 인간 외의 생물이 번영하여 멸종되는 일 없이 미래 세대까지 지속하기 위함이다. 에키켄의 학문은 인륜 세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포괄하는 세계관을 다룬다. 금수충어초목(생물)은 인간과 동일하게 천지에 의해 생육되므로, 함부로 죽이거나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생물 보전에 대해서도 명확히 논하고 있다.

에키켄의 사상에 따르면 사랑에 차등성이 있는데, 먼저 인륜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새와 짐승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풀과 나무를 사랑한다는 순서다. 인간이 삶을 유지하면서 다른 생명의 목숨을 빼앗거나 손상시키는 일은 불가결하다. 다른 생명을 스스로의 의식주를 위해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필연적인 일이다. 에키켄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상훈(五常訓)》 3권 1절을 통해 고찰해보자.

선인들은 밭에 있는 오곡을 해치는 금수를 죽였다. 민생을 위해 해를 끼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또 금수를 이용하여 종묘사직 신에게 바치거나 노인을 부양하고 귀빈을 대접하는 것도 합

리적이다. 또 틈을 이용하여 무도를 배우고 군벌을 가르치기 위해 사냥을 하여 금수를 죽이는 것도 합리적이다. ……금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살생에도 때가 있으며 예가 있는 법이라 함부로 살생해서는 아니 된다. 초목을 베는 일에도 때가 있으므로 함부로 베어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는 봄과 여름에 초목을 베지 않았다. 성장할 시기이기에. 산림에 들어가 나무를 벨 때도, 금수를 죽일 때도 시기가 있다. 새끼 짐승을 사냥하지 않고, 새의 알을 채집하지 않고, 임신 중인 생물 또한 죽이지 않는다. 동지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는 하늘의 뜻에 따라 만물을 가없이 여기는 일이다.

“만물을 사랑하는 일”이란 구체적으로 금수나 초목에게도 ‘예’를 갖추어 올바르게 이용하고 각각의 ‘때’에 맞추어 올바르게 취득하며, 함부로 죽이거나 베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다른 생물의 목숨을 빼앗고 훼손하며 스스로의 삶(생명, 문화, 문명에 이르기까지)의 유지를 위해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생물이 존속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할 ‘이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 그것이 단순히 이용해야 할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닌, ‘천지’의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 논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생물 보전 주장 중 가장 훌륭한 사상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3 인간의 윤리적 책임—‘검약할 것’

에도시대에는 ‘검약의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법률 조문에서 서민들의 생활 기록에 이르기까지 ‘검약’이 강조되어 왔다. 생활수준 향상, 막부의 대번 정책, 참근교대(參勤交代), 에도 저택 비용 등으로 소비 지출이 증대되었던 시기였기에 검약은 다른 경제적, 정치적 정책을 이행하는 전제 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검약을 제창하는 많은 유학자들이 나타났다. 에키켄 또한 검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저술하였다.

어진 정치를 꾀하려면 먼저 검약해야 한다. 검약은 사치하지 않는 것이다. 의복, 주택 등의 사적인 영역에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고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것이 검약이다. 나라는 크지만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과 재물은 유한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욕에 이끌려 쓸데없이 낭비하고 재화를 쓰면 재정은 매년 부족해질 것이다. 또한 풍흉에 따라 비축량이 달라진다. 재정이 부족하면 만일에 대비할 수 없고, 결국 낮은 자리의 사람을 약탈하고 빚을 지게 된다. 검약하지 않으면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어진 정치를 꾀할 틈이 있겠는가. 예로부터 현군들은 모두 검약을 지켜왔다. 검약은 현군의 미덕이다.

에키켄의 ‘검약’이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절약하고 금품을 아끼는 인색함과 다른 개념이며, ‘빈곤에서 구원하는’ 공익적 속성을 엿볼 수 있다. 또 앞서 기술한 ‘만물일체’ 사상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에키켄의 ‘검약론’은 인간 사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만물을 포괄하는 천지 만물을 위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인간 사회라는 좁은 의미의 검약이 아닌 지구 환경이라는 공익을 위한 검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생산력이 발달하지 않아 인류에 의한 자원 이용이 제한적이었던 고대에 에키켄의 ‘검약’ 사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간의 괴로움을 줄여주고, 일상생활의 여러 활동을 유지하게 해주는 반면, 생태계 자원을 보호할 수도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검약’ 주장은 우리 자손과 그 자손들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3. 결론

지금까지 현대 환경 윤리학과 가이바라 에키켄의 사상을 함께 검토해보았다. 환경 윤리학에 근거하여 주자학이 주장하는 바를 참고하면서 천지(자연)와 인간을 고찰한 에키켄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겠다.

- (1) ‘천지는 만물의 부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천지는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적 중심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천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천지 중심주의를 바꿀 수는 없다. 이는 환경 윤리학의 ‘비인간 중심주의’와 일치한다.

(2) 에키켄의 학문은 인류 세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만물’을 포괄하는 세계를 논한다. 금수충어목초 등은 인간과 동일하게 천지에 의해 생육되고 있으므로 함부로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이는 생명 윤리학의 ‘생명 다양성’의 존중, 자연과 생물의 공생 사상과 상통한다.

(3) 에키켄이 주창하는 ‘검약’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절약, 금화를 아끼는 인색함과 다르며, ‘빈곤에서 구원하는’ 공익적 특징이 있다. 환경 윤리학의 시점에서 보면 ‘검약’은 인간의 윤리적 책임이며, 천연 자원과 사회적 부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책임자:김나정)